

신혼기 부부의 차이 수용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통합적 행동 부부치료(IBCT)의 관점을 중심으로*

정 민 선

최 연 실**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신혼기 부부의 차이 수용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부부상담 현장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혼기 부부 160쌍을 모집하여 쌍자료를 수집한 후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델 분석을 통해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이 수용 태도 및 결혼만족도에서 남녀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부부의 차이 수용 태도는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기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차이 수용 태도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상대방효과는 아내에게서만 유의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도 수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지행동 커플치료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부부상담 전문가들이 신혼기 부부, 특히 아내의 차이 수용 태도를 촉진하는 데 유용한 전략 및 기법을 계획하고 사용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주제어 : 신혼기 부부, 차이 수용 태도, 통합적 행동 커플치료, 결혼만족도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상명대학교의 석사학위논문 중 일부임.

** 교신저자 : 최연실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 (03016)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Tel: 02-2287-5317 / E-mail: yschoi@smu.ac.kr / <https://orcid.org/0000-0002-3795-9667>

I. 서론

신혼기는 두 남녀가 만나 부부로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가족생활주기의 첫 번째 단계로, 가족 탄생기 또는 가족형성 단계라고 불리기도 한다(Carter & McGoldrick, 1980).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신혼기는 결혼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이다(이미영, 권정혜, 2016). 또한 이 단계에서는 ‘부부적응’이라는 발달과업이 요구되며, 그것의 성취 여부에 따라 성공적인 결혼생활인지가 판단되어질 수 있다(임유진, 박정윤, 김양희, 2008). 여기서 부부적응은 부부가 결혼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하고 결혼만족을 추구하는 동적인 과정이다(이지현, 2007). 선행연구에 따르면, 원가족과 적절히 분화하고 부부적응에 성공한 개인은 결혼안정성이 높은 반면(이영희, 2011), 적응에 실패한 신혼기 부부는 이혼을 결정하는 확률이 높았다(이광자, 1992).

비슷한 맥락에서 Duvall(1977)은 결혼 후 1년이 부부적응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시기이며, 결혼 후 3년째에 이혼 건수가 가장 많다고 지적하였다. 국내에서도 2011년까지는 전체 이혼 건수 중 혼인 지속 기간이 4년 이내인 신혼기의 비중이 가장 우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황혼 이혼 다음의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21). 이처럼 신혼기의 부부적응은 결혼안정성, 결혼만족도 등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하여 신혼기 부부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일상생활 방식과 습관들부터 정서표현 및 의사소통 방식, 삶에 대한 가치관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를 끊임없이 협상해 나간

다(권수정, 전영주, 2007). 그러나 각기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두 사람은 이러한 협상의 과정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안향선, 서미아, 2019). 부부 간 갈등 및 의견충돌 이유에 관한 통계 결과(통계청, 2020a)를 살펴보면, 1순위와 2순위에서 모두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 가치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권수정과 전영주(2007)는 부부가 이러한 차이로 인한 갈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부부적응에 실패하면 결국 이혼에 이르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국내 이혼 사유 1위 또한 성격 차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통계청, 2017). 이는 신혼기에 배우자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정하는 것이 부부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1990년대 이후, 국외에서 부부 사이에는 결코 좁힐 수 없는 차이들이 존재하며, 그 본질적인 차이에 의해 발생한 갈등은 기존의 행동주의적 접근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이기복, 2006). Gottman 부부(201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부갈등의 69%는 성격 차이,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 등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단 31%만이 해결 가능한 문제였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부부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배우자 간 성격, 가치관, 성별 등의 차이는 필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계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들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Jacobson과 Christensen(1996)이 기존의 부부상담에서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소홀하게 다루어졌음을 지적하면서 강조한 ‘수용(acceptance)’이라는 개념이다. 이들은 어느 부부에게나 문제와 갈등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며, 갈등을 없애려

고 하기 보다는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부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기복, 2006). 여기서 수용은 체념 또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비판하거나 배우자에게 변화를 강요하지 않으며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뜻한다(이선희, 2011). 또한 이 개념은 많은 상담 접근법에서 부부 간의 필연적인 차이로 인한 문제들을 다루는 방안이면서 갈등을 친밀함을 극대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받고 있다(Christensen, Dimidjian & Martell, 2015; Gottman & Gottman, 2015).

이러한 맥락에서 출현한 통합적 행동 커플치료(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IBCT)는 상담의 목표로 행동 변화와 수용 촉진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한다(김중술 등, 2002). 그리하여 이 접근법을 지향하는 상담자들은 행동교환과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훈련 같은 행동주의적 기법과 더불어 공감적 합류하기, 문제로부터 거리두기, 관용 구축하기 등의 수용 전략을 사용한다(Christensen et al., 2015). 이렇게 더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는 통합적 행동 커플치료의 효과를 전통적인 행동 커플치료(Traditional Behavioral Couple Therapy: TBCT)의 효과와 비교한 결과, 수용을 촉진하는 전략이 행동 변화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기법들보다 부부들의 결혼만족도 향상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경험적 연구를 통해 통합적 행동커플치료는 전통적인 행동 커플치료보다 지속적으로 우세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 지지되었다(Christensen et al., 2004; Christensen, Atkins, Yi, Baucom, & George 2006; Christensen, Atkins, Baucom, & Yi 2010; Jacobson, Christensen, Prince, Cordova & Eldridge, 2000).

국내에서는 김중술 등(2002)이 부부상담의 새로운 접근으로 통합적 행동 커플치료를 소개한 이후로 수용에 관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먼저 부부의 차이 수용 태도를 증진시키는 전략을 포함한 부부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박남숙, 연문희, 2002; 이기복, 2006; 이선희, 2011). 또 결과적으로 수용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부부적응이나 결혼만족도 등 부부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켰다. 최근에는 커플들이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Acceptance for Differences in Couple Relationship Scale: ADCRS)가 개발되었다(임아영, 이훈진,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강혜숙, 김영희, 2008; 박수선, 2013; 안향선, 서미아, 2019; 오현주, 최승미, 조현, 권정혜, 2012, 2013)은 여전히 원가족 관련 요인과 부부 간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배우자 간의 차이를 수용하는 태도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를 개발한 임아영과 이훈진(2020)의 연구에 따르면, 차이를 수용하는 태도는 미혼 및 기혼 집단에서 모두 커플관계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미혼 집단보다 기혼 집단에서 그 영향력이 더 컸다. 그러나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를 사용한 기존의 연구들(임아영, 이훈진, 2020, 2021)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교제 경험은 있지만 현재 커플이 아닌 참여자들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둘째,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분석함으로써 커플관계의 상호연결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계적 측면을 보는 연구

임에도 각각의 자료를 개인 단위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상관관계가 있는 측정값을 독립적으로 가정하고 분석하면 유의성 검증에 편향을 가져와 1종 오류 혹은 2종 오류를 증가시킬 수 있다(Cook & Kenny, 2005).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커플, 부부,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과 같이 쌍방향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분석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혼기 부부의 차이 수용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쌍자료를 양방향으로도 분석함으로써 국내 부부·가족치료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혼기 부부의 차이 수용 태도 및 결혼만족도에서 남녀 간 차이가 있는가?

둘째, 신혼기 부부의 차이 수용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과가 있는가?

셋째, 신혼기 부부의 차이 수용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대방효과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신혼기 부부

신혼기는 결혼을 통해 법적으로 가족이 된 이후부터 첫 자녀를 임신할 때까지로, 가장 낭만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시기이다(이기숙

등, 2009). 결혼 후 몇 년까지가 신혼기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된 바가 없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오현주 등(2012, 2013)은 3년 미만, 이미영과 권정혜(2016)는 만 3년 이내, 박수선(2013) 그리고 안향선과 서미아(2019)는 5년 이내, 박길순과 박정윤(2020)은 7년 이하로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었다. 통계청(2020b)에서는 신혼부부를 혼인신고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라고 정의하였다.

가족생활주기의 관점에서 신혼기는 가족 탄생기 또는 가족형성 단계라고 불리기도 하며, 첫 자녀를 출산하기 전까지 두 사람이 결혼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시기를 의미한다(Carter & McGoldrick, 1980). 다시 말해 부부가 각자의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하나의 체계로서 함께 생활하고 경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도기인 것이다(김선주, 박정윤, 2013; 정현숙, 유계숙, 2001). 이러한 전환기에 부부가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은 크게 부부적응과 부모됨 준비라고 설명되어 왔다.

선행연구들(권수정, 전영주, 2007; 김유숙, 전영주, 김수연, 2003; 김희진, 2005; 이광자, 1992)에 따르면, 부부적응에 실패한 신혼기 부부는 실제로 이혼을 결정하는 확률이 높았다. 따라서 신혼기 동안 부부는 안정적인 행복한 가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영역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협상하고 조정해야 한다(권수정, 전영주, 2007). 그러나 결혼은 다른 성장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오현주 등, 2012).

한편, 가정의 기능적 역할과 안정성을 중시하던 과거와 달리 현대 부부들은 그들의 관계에서 친밀감과 행복을 더 중요하다고 본다(권

정혜, 채규만, 2000; 박남숙, 연문희, 2002). 즉, 부부 간에 친밀감과 만족감이 적을 때 결혼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혼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통계청(2018)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72.2%가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라는 문장에 찬성한다고 답하였다. 국내 전체 이혼건수 중 혼인지속기간이 4년 이내인 신혼기의 비중은 꾸준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21).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가족교육 및 상담 분야에서 신혼기 부부의 갈등 해결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 신혼기 이혼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부로 하여금 배우자 간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가족교육 분야에서는 신혼기 부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었으나, 대부분 의사소통 기술의 습득과 갈등해결의 방식에 강조점을 두고 있었다(이은영, 2017). 아울러 커플치료의 국내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1980년부터 2016년까지 KCI등재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 중 신혼기 부부를 주제로 한 연구는 12편이 전부였다(최빛내, 최우정, 최연실,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신혼기 부부를 대상으로 차이 수용 태도와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다룸으로써 가족교육 및 상담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2. 차이 수용 태도

1) 차이 수용 태도의 정의

수용(acceptance)은 행동주의 기법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이다. 즉,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Commitment Therapy: ACT),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 통합적 행동 커플치료(IBCT) 등 인지행동치료 제 3의 물결을 일으킨 주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문현미, 2005). 뿐만 아니라 정서중심치료(Emotionally Focused couple Therapy: EFT), Gottman 커플치료 등 통합적인 성격의 상담 모델들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단어이다.

그 중 IBCT는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각 배우자의 특성들 그리고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맥락을 수용의 대상으로 보았다(Sperry & Peluso, 2019). 즉, 상담 개입의 범위가 개인에서 미혼 커플이나 기혼 부부를 포함한 다양한 양자관계(dyad)로 확장된 것이다(김중술 등, 2002). 그리하여 IBCT에서 수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Christensen et al., 2015). 첫째, 부부 간의 필연적인 기질 및 성격 차이 등과 같이 행동 변화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루는 방안이다. 둘째, 부부갈등을 오히려 친밀함을 극대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라는 특수한 맥락에서의 수용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개인 내면적 수용과 구분하기 위하여 이를 ‘차이 수용’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차이 수용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이것과 의미를 같이 하는, 유사한 개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가족상담의 선구자 Bowen의 핵심개념인 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이다. 개인내적 측면에서 자아분화는 사고와 감정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지만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자아분화는 자신과 타인 사이의 분화를 의미한다(정문자, 정혜정, 이선혜, 전영주, 2018). Bowen(1978)은 부부관계에서 한 사람이 자아분화를 이루어 상대를 변화시

키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 회복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차이 수용의 일부 의미와 부합하므로 차이 수용 또한 부부 및 가족관계의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인간중심접근의 개발자인 Rogers가 강조하는 공감(empathy)과 무조건적 존중(unconditional regard)이다. 이는 상담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태도라고 여겨지지만 부부관계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이다. 또 공감은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원만한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백성희, 2014). Rogers(1961)는 부부관계에서 배우자를 나의 관점으로 판단 및 평가하지 않는 비 판단적인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과 무조건적 존중은 차이 수용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2) 차이 수용 태도를 촉진하는 방법

위에서 언급했던 IBCT에서 말하는 수용의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갈등 상황을 친밀감 향상의 수단으로 전환시키려는 것과 상대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내려놓는 것이다(한지수, 최연실, 2020). 상담자는 전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감적 합류하기와 문제로부터 거리두기를, 후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용 구축하기를 전략으로 사용한다.

먼저 공감적 합류하기(empathic joining)는 부부가 한 팀이 되어 갈등을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부가 서로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적극적 경청의 태도로 평소에 표현하기 어려웠던 두려움이나 슬픔 같은 부드러운 감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였다

(Christensen et al., 2015). 문제로부터 거리두기(unified detachment)는 부부로 하여금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로부터 거리를 두고 그 문제를 ‘그것’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한 쪽에 의자를 둔 후 거기에 가상의 치료자가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설명해 보는 의자기법이 동원될 수 있다(김중술 등, 2002). 여기에 더하여 관용 구축하기(tolerance building)는 배우자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부는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상대방의 행동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고, 상담 장면에서 일부러 부정적인 행동을 해 보기도 하며, 상대방에게 쏟던 에너지로 자기돌봄을 증진하는 데 사용한다(Sperry & Peluso, 2019).

3. 결혼만족도

1) 결혼만족도와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별의 경우, 대부분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김경주, 김영혜 2015; 원수경, 설경옥, 2020; 윤희진, 2010; 이은희, 2011; 이진아, 이인수, 2016; 조유리, 2000; 최인숙, 2005; 홍순건, 채규만, 2010). 그런데 오현주 등(2012, 2013)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 결혼을 지속한 기간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는데(윤희진, 2010; 조유리, 2000; 최인숙, 2005; Lavner, Karney & Bradbury, 2014), 대부분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아졌다. 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도 나타났다(연구진, 연문희, 양지웅, 2013; 최인숙,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수집하여 통제변인으로

투입하고자 한다.

2) 차이 수용 태도와 결혼만족도

먼저 국외에서 차이 수용과 결혼만족도가 정적 상관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도출되었다(Altrocchi, 1988; Arkowitz, 1998; Christensen et al., 2004; Jacobson et al., 2000). 그 중 Jacobson과 그의 동료들(2000)은 부부 21쌍을 대상으로 TBCT와 IBCT를 실시하였는데, IBCT에 참여한 부부들이 TBCT에 참여한 부부들보다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Christensen 등(2004)은 고통 받고 있는 부부 134쌍을 대상으로 TBCT와 IBCT를 실시하였는데, 초기에는 TBCT 참여집단이 더 빠르게 결혼만족도의 개선을 보였으나 IBCT 참여집단은 꾸준히 개선되어 TBCT 참여집단에 비해 더 장기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TBCT와 IBCT의 다른 점인 차이 수용 덕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다음과 같이 부부의 차이 수용 태도를 증진시키는 전략을 포함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우선 박남숙과 연문희(2002)는 부부관계의 증진과 개인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여기에는 일치적 의사소통, 부부의 성차 및 성격 차이에 대한 이해, 정서적 친밀감 등이 구성요소로 들어갔다.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참가집단의 부부적응과 친밀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승을 보였다. 또 프로그램 참여 후 배우자의 태도 변화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를 살펴보니 남편은 아내가 본인을 더 존중하고 공감해준다고 지각하였으나, 아내에게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기복(2006)도 자아 수용, 배우자 수용, 상호관계 수용, 환경 수용을 회기

별 목표로 수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는 참여 부부들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희(2011)도 IBCT를 기초로 프로그램을 개발 후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는 참여자들의 자아분화와 결혼만족도만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종료 1개월 후인 추수 시점까지 살펴보니 자아분화와 결혼만족도뿐 아니라 부부관계, 부부의사소통이 점진적으로 상승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추가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차이 수용과 관련된 개념들 중 자아분화, 공감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아분화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향순, 김순덕, 구명이, 2014; 오종현, 2016; 이은진, 2019), 부부의 상호영향력을 살펴보니 상대방효과는 남편에게서만 나타났다(나남숙, 2017; 유보람, 2019). 공감도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현주, 안현의, 2011; 진영록, 2013). 이러한 관계를 APIM 분석한 결과, 부부의 공감능력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모두 유의하였으나 상대방효과는 아내에게서만 나타났다(강민재, 2016).

최근 임아영과 이훈진(2020)이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ADCRS)를 개발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미혼자와 기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이 수용 태도와 커플관계 만족도는 .71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후 성격특성과 커플관계 만족도, 성인애착과 커플관계 질의 관계에서 차이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도 하였다(임아영, 이훈진, 2021, 2022a). ADCRS를 활용하여 쌍자료 분석

을 시도한 연구(임아영, 이훈진, 2022b)에 따르면, 차이 수용 태도가 커플관계의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는데, 결혼 상태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니 상대방효과는 기혼집단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이 수용 태도가 높을수록 배우자도 수용적이라고 지각하는 유사성 편향과 스스로 보고한 차이 수용 태도와 상대방이 평정해준 차이 수용 태도가 일치하는 정도인 정확성이 모두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차이 수용 태도는 결혼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내와 남편의 차이 수용 태도가 서로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 즉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모두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자기-상대방효과

APIM은 Kenny(1996)가 제안한 것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쌍방향 효과를 분석할 때 사용된다. 즉, 개인적 특성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인 자기효과(actor effect)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인 상대방효과(partner effect)를 동시에 알아볼 수 있다(노현주, 2021). 또한 독립변인들 간 상관과 오차항 간 상관을 가정하고 있다(Cook & Kenny, 2005). 여기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은 예측변인이 결과변인을 예측할 때 다른 예측변인을 통제하는 것을 뜻한다(정송이, 2019). 오차항 간 상관은 각각의 결과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때 예측변인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의 효과에 예측을 가정한 역할을 한다(전은희, 2017).

이와 같은 가정을 가지고 APIM 분석을 활용하면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봄으로

써 관계적 측면에 대해 더 풍부한 설명이 가능하고, 연구모형과 등가제약모형 사이의 차이 검증은 실시함으로써 어느 쪽이 자신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Cook & Kenny, 2005). 또 오차항 간 공분산을 설정함으로써 모형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변인 간의 연관성까지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김혜수, 2019).

그리하여 특히 친밀한 관계인 미혼 커플이나 기혼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자주 사용된다. 비독립적인 짝(dyadic)자료를 분석하여 상호의존적인 영향을 본다는 점에서 체계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부부 및 가족상담 분야에 유용하기 때문이다(박찬미, 2014).

국내에 차이 수용 태도를 변인으로 사용한 APIM 연구도 있었는데, 자기보고 차이 수용 태도와 파트너의 차이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 그리고 커플관계 질의 관계를 검증한 것이었다(임아영, 이훈진, 2022b).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모두 자신의 차이 수용 태도가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파트너의 차이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이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남녀 모두에서 유의하였다. 셋째, 자기효과가 상대방효과에 비해 일관되게 크게 나타났다. 넷째, 남녀 모두 차이 수용 태도가 높을수록 파트너의 차이 수용 태도도 높게 지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혼기 부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APIM 분석을 통해 차이 수용 태도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신혼기 부부 체계의 상호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신혼기 부부의 차이 수용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신혼기 부부 160쌍(3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기간이 5년 이내인 부부이다. 둘째, 자녀가 없는 부부이다. 이는 선행연구 및 가족생활주기적 관점의 정의에 따른 기준이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연령, 학력, 직업, 결혼기간, 월 소득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160)

항목	빈도(%)		
	남편	아내	
연령	만 20~29세	16(10.0)	20(12.5)
	만 30~39세	127(79.4)	139(86.9)
	만 40~49세	17(10.6)	1(0.6)
학력	중학교 졸업	0(0.0)	1(0.6)
	고등학교 졸업	24(15.0)	15(9.4)
	대학교 졸업	119(74.4)	125(78.1)
	대학원 졸업	17(10.6)	19(11.9)
직업	전문직	28(17.5)	26(16.3)
	관리직	28(17.5)	1(0.6)
	사무직	54(33.8)	76(47.5)
	생산직	15(9.4)	0(0.0)
	서비스직	17(10.6)	10(6.3)
	자영업	8(5.0)	5(3.1)
	전업주부	0(0.0)	30(18.8)
	무직 또는 실직	2(1.3)	5(3.1)
기타	8(5.0)	7(4.4)	
부부 공통			
결혼기간	1년 이하	21(13.1)	
	2년 이상 3년 이하	108(67.5)	
	4년 이상	31(19.4)	
월 소득	300만원 미만	47(29.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64(40.0)	
	400만원 이상	49(30.6)	

따라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결혼기간과 월 소득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신혼기 부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어떠한 목적이든 연구대상자를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인 2022년 5월 30일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22년 6월 16일에 심의 면제 대상임을 확인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상황을 고려하여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지는 연구 목적, 비밀 보장, 연구 참여 동의 등에 대한 안내문으로 시작하여 자기보고식 척도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혼기 부부의 짝(dyadic)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를 식별하기 위한 장치로 본인과 배우자의 전화번호 끝자리를 입력하도록 하였고, 설문에 대해 부부 간의 의논을 삼가도록 부탁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2년 7월 5일부터 2022년 7월 11일까지 전국에 있는 신혼기 부부들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설문지 총 336부(168쌍)를 배포하여 95.2%에 해당하는 320부(160쌍)를 회수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부부 중 한쪽만 응답하거나 5개 이상의 무응답이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이 포함된 자료는 쌍으로 제외해 총 320명(160쌍)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25.0과 AMO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측정도구

1)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차이 수용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임아영과 이훈진(2020)이 제작한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Acceptance for Differences in Couple Relationship Scale: ADCR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통합적 행동 커플 치료(IBCT)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자기보고식 척도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ADCRS는 수용의 두 가지 의미(갈등 상황을 친밀감 향상의 수단으로 전환시키려는 것, 상대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내려놓는 것)와 수용을 촉진하는 세 가지 전략(공감적 합류하기, 문제로부터 거리두기, 관용 구축하기)을 바탕으로 개발된 것이다. 그리하여 다름을 통한 성장, 다름에 대한 존중,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 다름에 대한 인내의 5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의 정의와 예문은 다음과 같다(임아영, 이훈진, 2020). 첫째, 다름을 통한 성장(5문항)은 커플 간 차이의 긍정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통해 더욱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태도이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이 있다. 둘째, 다름에 대한 존중(5문항)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태도이다. 이 하위척도는 “나와 계속 함께하려면 파트너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과 같이 역채점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셋째,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4문항)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상대방의 노력과 고통을 이해하는 태도이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서로 다른 점을 맞춰 가기 위해 파트너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을 것이다.” 등이 있다. 넷째,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3문항)는 차이로 인해 파생된 부정적 생각이나 정서로부터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태도이다. 이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 나의 선입견이 개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름에 대한 인내(5문항)는 서로의 차이와 그로 인한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이다. 이 하위척도는 “서로 달라서 부딪힐 때면 자주 관계의 끝을 떠올리게 된다.”, “서로 달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견디기 어렵다.” 등의 역채점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한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에서의 차이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한다. 임아영과 이훈진(2020)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2) 결혼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신혼기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석선 등(2022)이 Funk와 Rogge(2007)의 Couples Satisfaction Index(CSI 16)를 번안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어판 부부만족도(K-CSI 16)를 사용하였다.

K-CSI 16은 배우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하는 만족감을 알 수 있는 지표로,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의 배우자와의 관계는 나를 행복하게 한다.”, “귀하는 부부 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등이다.

1번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나머지 문

항들은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또 이 척도는 단일요인으로 개발되었으며, 5개의 문항은 역채점한다. 김석선 등(2022)의 연구에서 결혼만족도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9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변인들 간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결과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측정 변인인 연구 대상자의 차이 수용 태도(다름을 통한 성장, 다름에 대한 존중,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 다름에 대한 인내)와 결혼만족도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을 도출하고, 자료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 크기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측정 변인의 왜도는 3을, 첨도는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에 근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신혼기 부부들의 결혼만족도 총점은 48.5점에서 73점 사이로, 평균 65.6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나누어 계산해 보았을 때 남편은 66.36점, 아내는 64.8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는데, 측정 변인들은 모두 유의수준 .01에서 관련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편의 차이 수용 태도는 자신의 결혼만족도($r=.67$)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내의 차이 수용 태도는 자신의 결혼만족도($r=.67$)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

〈표 2〉 남편과 아내의 변수별 기술통계치 (N = 160)

변인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남편	차이 수용 태도	5.44	.79	3.25	7.00	-.39	-.41
	다름을 통한 성장	3.97	.66	1.67	5.00	-.65	.52
	다름에 대한 존중	3.51	.75	1.00	5.00	-.17	.09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	4.20	.57	2.17	5.00	-.67	.17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	3.86	.58	2.33	5.00	-.35	-.14
	다름에 대한 인내	4.09	.74	1.40	5.00	-.89	.37
	결혼만족도	5.30	.72	3.00	6.06	-.95	.09
아내	차이 수용 태도	5.19	.74	3.00	6.75	-.27	-.23
	다름을 통한 성장	3.86	.57	1.80	5.00	-.56	.21
	다름에 대한 존중	3.10	.71	1.53	5.00	.14	-.36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	4.28	.51	3.00	5.00	-.68	-.04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	3.66	.58	2.33	5.00	-.01	-.47
	다름에 대한 인내	3.88	.73	1.67	5.00	-.58	.01
	결혼만족도	4.99	.91	2.44	6.06	-.98	.05

〈표 3〉 주요 변인들의 상관계수 (N = 160)

	1	2	3	4
1. 남편의 차이 수용 태도	1			
2. 남편의 결혼만족도	.67**	1		
3. 아내의 차이 수용 태도	.34**	.34**	1	
4. 아내의 결혼만족도	.30**	.42**	.67**	1

* $p < .05$, ** $p < .01$

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남편의 차이 수용 태도는 아내의 결혼만족도($r=.30$)와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아내의 차이 수용 태도 역시 남편의 결혼만족도($r=.34$)와 정적 상관관계

를 보였다. 또한 남편의 차이 수용 태도는 아내의 차이 수용 태도($r=.34$)와,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아내의 결혼만족도($r=.42$)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별에 따른 변인들 간의 차이

남녀 간 차이 수용 태도 및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를 이용하였고,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결혼만족도($t=3.01, p<.01$)는 남편이 아내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으며, 차이 수용 태도($t=3.13, p<.01$) 또한 남편이 아내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차이 수용 태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에 대해서도 남녀 간 차이 비교를 위해 *t*-test를 이용하였는데 ‘다름을 통한 성장’과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에서는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름에 대한 존중’($t=5.07, p<.001$)은 남편이 아내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t=3.15, p<.01$)와 ‘다름에 대한 인

내’($t=2.49, p<.05$) 또한 남편이 아내보다 높게 나타났다.

3. 측정모형 검증

1) 문항꾸러미 제작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관측변인이 타당하게 구성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차이 수용 태도의 관측변인은 5개이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타당도를 계산할 수 있으나 결혼만족도는 단일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Russell과 Kahn과 Spoth 그리고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항목군형법(문항묶음법)을 통해 다수의 개별 측

〈표 4〉 성별에 따른 변인들 간의 차이 분석 결과 (N = 160)

주요 변인	하위 요인	구분	M	SD	<i>t</i>
결혼만족도		남편	5.30	.70	3.01**
		아내	5.04	.84	
차이 수용 태도		남편	5.38	.81	3.13**
		아내	5.11	.73	
다름을 통한 성장		남편	3.97	.66	1.69
		아내	3.86	.57	
다름에 대한 존중		남편	3.51	.75	5.07***
		아내	3.10	.71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		남편	4.20	.57	-1.29
		아내	4.28	.51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		남편	3.86	.58	3.15**
		아내	3.66	.58	
다름에 대한 인내		남편	4.09	.74	2.49*
		아내	3.88	.73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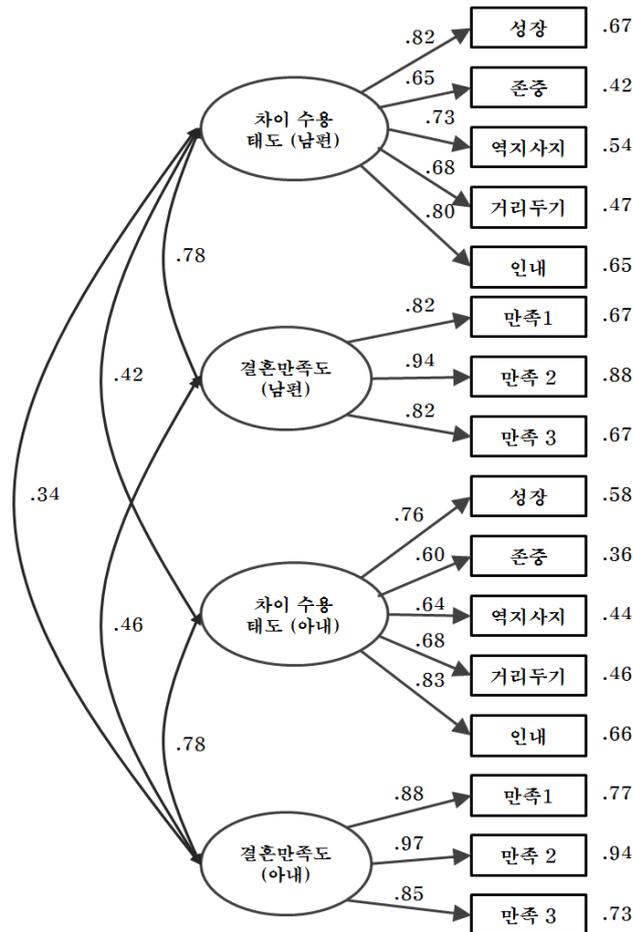
정 문항을 결합하여 문항꾸러미(item parceling)를 제작하였다. 문항꾸러미는 요인부하량의 절댓값을 기준으로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항목과 낮은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항목들을 쌍으로 묶고, 그 다음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항목들을 결합하여 쌍으로 묶어 제작하였다(우중필, 2012).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문항꾸러미 간 공통분산의 비율이 높아져 신뢰도가 증가한다(노현주, 2021).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한 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하고 있는 많은 문항들을 그대로 해

당 잠재변인의 측정변수로 사용하는 경우, 정규분포의 가정이 위반될 확률이 높아지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여 자료를 분석하면 자료의 비정규성 수준이 감소하고 모형의 적합도가 향상될 수 있다(Bandalos, 2002).

2)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및 적합도

독립변인인 차이 수용 태도는 5가지 하위요인(성장, 존중, 역지사지, 거리두기, 인내)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인인 결혼만족도는 문항뮤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형

〈표 5〉 측정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지수	CMIN	CMIN/df	RMSEA	IFI	TLI	CFI	RMR
연구 모형	$p=.00$ $\chi^2=147.36$ df=86	1.71	.07	.97	.95	.96	.02
최적모델 기준치		CMIN/df ≤ 3	RMSEA ≤ .10	IFI ≥ .90	TLI ≥ .90	CFI ≥ .90	RMR ≤ .05

음을 실시하여 3가지 하위요인(만족1, 만족2, 만족3)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반영한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형은 그림 1과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표 5와 같이 적합도 지수 IFI(Incremental Fit Index), TLI(Turker-Lex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CMIN/df, RMES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R(Root Mean square Residual)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또 최적모델 기준치가 IFI ≥ .90, TLI ≥ .90, CFI ≥ .90, CMIN/df ≤ 3, RMESA ≤ .10, RMR ≤ .05임을 참고하였다(우종필, 2012).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CMIN/df = 1.71, RMESA = .07, IFI = .97, TLI = .95, CFI = .96, RMR = .02로 계산되어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타당성은 구성개념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수용기준이 표준화 적재값(= 표준화된 계수 = 요인부하량) ≥ .50, 개념신뢰도(CR) ≥ .70, 평균분산추출값(AVE) ≥ .50임 그리고 표준화 적재값이 .70 이상이면 ‘ 좋음’으로 판정함을 참고하였다(우종필, 2012).

본 연구에서 집중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준화 적재값은 .60~.97로 ‘ 좋음’의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T-값도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념신뢰도(CR)는 .93~.96, 평균분산추출값(AVE)은 .72~.88로 기준치보다 높아 집중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판별타당성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검증되며, 평균분산추출값(AVE)이 상관관계의 제곱보다 높으면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우종필, 2012). 표 7은 잠재변인 간 AVE-상관계수표이다. 대각선에 적혀있는 값은 잠재변인의 AVE 값이며, 2개 변인이 교차하는 곳에 적혀있는 값이 상관계수이다. 본 연구에서 평균분산추출값(AVE)이 상관계수의 제곱값들 보다 모두 높아 연구모형은 판별타당성 또한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4.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1)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남편의 차이 수용 태도가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 아내의 차이 수용 태도가 아내의 결혼만족도

〈표 6〉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인	측정변인	표준화 적재값	T-값	CR	AVE
남편의 차이 수용 태도	성장	.82	-	.93	.74
	존중	.65	.11		
	역지사지	.73	.08		
	거리두기	.68	.08		
	인내	.81	.10		
아내의 차이 수용 태도	성장	.76	-	.93	.72
	존중	.60	.13		
	역지사지	.64	.10		
	거리두기	.68	.11		
	인내	.83	.14		
남편의 결혼만족도	만족1	.82	-	.95	.87
	만족2	.94	.08		
	만족3	.82	.10		
아내의 결혼만족도	만족1	.88	-	.96	.88
	만족2	.97	.06		
	만족3	.85	.07		

〈표 7〉 잠재변인 간 AVE-상관계수표

	1	2	3	4
1. 남편의 차이 수용 태도	.74			
2. 아내의 차이 수용 태도	.43	.72		
3. 남편의 결혼만족도	.78	.43	.87	
4. 아내의 결혼만족도	.34	.78	.46	.88

〈표 8〉 연구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지수	CMIN	CMIN/df	RMSEA	IFI	TLI	CFI	RMR
연구모형	$\chi^2=214.38$ df=134	1.60	.06	.96	.94	.96	.02
최적모델 기준치		CMIN/df ≤ 3	RMSEA ≤ .10	IFI ≥ .90	TLI ≥ .90	CFI ≥ .90	RMR ≤ .05

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를 제시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8과 같고, 측정모형과 마찬가지로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2) 차이 수용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차이 수용 태도와 결혼만족도 간의 상호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고, 그림 2에서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알 수 있다. 또한 경로의 모수치 추정 결과는 표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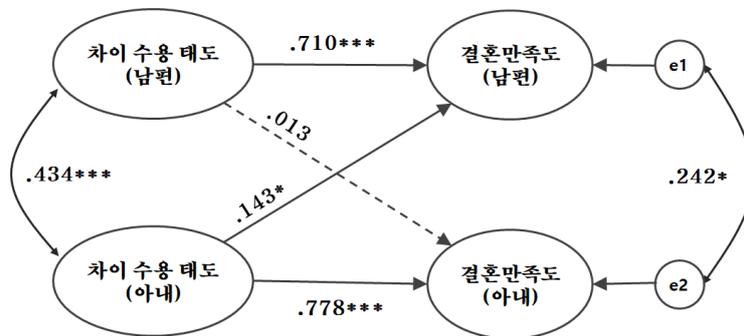
결과적으로 남편의 차이 수용 태도는 자신의 결혼만족도($\beta=.710, p=.000$)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내의 결혼만족

도($\beta=.013, p=.854$)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내의 차이 수용 태도는 자신의 결혼만족도($\beta=.778, p=.000$)뿐만 아니라 남편의 결혼만족도($\beta=.143, p=.045$)에도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등가제약모형 검증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차이 수용 태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로 추정된 경로계수를 비교하기 위해 등가제약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연구모형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먼저 차이 수용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남편의 자기효과와 아내의 자기효과는 $\chi^2(1)=12.81,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 $p<.05$, ** $p<.01$, *** $p<.001$)

[그림 2] 차이 수용 태도와 결혼만족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표 9> 차이 수용 태도와 결혼만족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수치 추정 결과

경로	β	b	S.E.	t	p
(남편) 차이 수용 태도 → (남편) 결혼만족도	.710	.646	.083	7.818	.000
(아내) 차이 수용 태도 → (아내) 결혼만족도	.778	1.242	.150	8.273	.000
(남편) 차이 수용 태도 → (아내) 결혼만족도	.013	.015	.084	.184	.854
(아내) 차이 수용 태도 → (남편) 결혼만족도	.143	.173	.086	2.003	.045

〈표 10〉 차이 수용 태도 - 결혼만족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간의 비교를 위한 등가제약모형 간 χ^2 차이검증

	χ^2	df	RMSEA	IFI	TLI	CFI	RMR	χ^2 차이검증
연구모형	214.38	134	.06	.96	.94	.96	.02	
자기효과 등가모형	227.18	135	.07	.95	.93	.95	.03	$\chi^2(1)=12.81,$ $p<.001$
남편의 결혼 만족도에 대한 등가모형	225.73	135	.07	.95	.93	.95	.03	$\chi^2(1)=11.36,$ $p<.01$
아내의 결혼 만족도에 대한 등가모형	259.26	135	.08	.94	.94	.94	.03	$\chi^2(1)=44.88,$ $p<.001$

미치는 차이 수용 태도의 자기효과는 남편보다 아내가 더 큰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해 남편의 자기효과와 아내의 상대방효과를 비교한 결과, $\chi^2(1)=11.36,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아내의 차이 수용 태도보다 자신의 차이 수용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해 아내의 자기효과와 남편의 상대방효과를 비교한 결과, $\chi^2(1)=44.88, p<.001$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아내의 경우에도 남편의 차이 수용 태도보다는 자신의 차이 수용 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신혼기 부부 160쌍을 모집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다중회귀분석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 분석을 통해 수집된 쌍자료를 분석하였다. 신혼기 부부의 차이 수용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부부상담 분야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질문에 따른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혼기 부부의 차이 수용 태도 및 결혼만족도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먼저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아내의 결혼만족도보다 높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김경주, 김영혜 2015; 원수경, 설경옥, 2020; 윤희진, 2010; 이은희, 2011; 이진아, 이인수, 2016; 조유리, 2000; 최인숙, 2005; 홍순건, 채규만, 201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차이 수용 태도 또한 남편이 아내보다 높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하위요인들 중 다름에 대한 존중,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 다름에 대한 인내가 더 높다. 선행연구인 임아영과 이훈진(2021, 2022a, 2022b)의 연구에서도 차이 수용 태도의 총점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는데, 하위요인들 중 다름에 대한 존중과 다름에 대한 인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들은 비교적 아내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서로의 차이와 그로 인한 불편함을 잘 견디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요

구-철회 패턴(demand-withdraw pattern)과 연결 지을 수 있다. 부부갈등 상황에서 더 민감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한쪽 배우자는 부부관계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다른 배우자를 비난하며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그 다른 배우자는 싸움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요구-철회 패턴을 고려해 볼 때 요구가 높은 배우자는 철회하는 태도를 취하는 배우자에 비해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인내가 더 낮을 수 있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의 차이 수용 태도 점수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신혼기 부부의 차이 수용 태도는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기효과를 갖는다. 다시 말해 남편의 차이 수용 태도는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아내의 차이 수용 태도도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신혼기 부부들이 자신과 배우자의 차이가 필연적임을 알고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질수록 자신의 결혼생활에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차이 수용 태도를 촉진시키는 전략을 사용한 프로그램이 참여집단의 결혼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는 선행 연구들(박남숙, 연문희, 2002; 이기복, 2006; 이선희, 2011; Christensen et al., 2004; Jacobson et al., 2000)을 지지한다. 또한 커플관계에서 차이를 수용하는 태도가 커플관계 만족도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고 밝힌 임아영과 이훈진(202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를 통해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와의 기질 및 성격 차이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면 부부관계의 질적 측면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혼기 부부를 상대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할 때는 부부로 하여금 서로의 차이를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신혼기 부부의 차이 수용 태도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상대방효과는 아내에게서만 유의하다. 다시 말해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아내의 차이 수용 태도에 영향을 받지만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차이 수용 태도 외의 다른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반복검증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차이 수용과 일부 의미가 부합했던 공감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강민재, 2016)에서도 본 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내가 온정적인 태도로 남편의 감정과 생각에 공감하는 것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아니다. 이를 통해 남편은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비교적 더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한편, Big5 성격특성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임아영, 이훈진, 2021)에서 남편의 경우 차이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가 큰 반면, 아내의 경우에는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가 커플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연구(임아영, 이훈진, 2022a)에서도 남편의 경우 차이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만 유의했던 반면, 아내의 경우에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두드러졌다. 즉, 남편은 다른 요소들에 비해 차이 수용 태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아내는 차이 수용 태도에 비해 의사소통이나 갈등해결전략에 더 영향을 받는 것일 수 있다. 아울러 기혼남녀의 성차연구(박

정윤, 이태현, 강리라, 윤소진, 2019)에 따르면, 여성은 의견 불일치가 부부관계의 질을 낮추며, 부부관계는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따라서 여성들이 배우자와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게 느끼고, 남편이 그것을 수용하기보다는 함께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기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자기효과가 남편의 자기효과보다 크고, 부부 모두 상대방효과보다는 자기효과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커플관계에서 차이 수용 태도가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가 상대방효과에 비해 크다고 밝힌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임아영, 이훈진, 2022b). 다시 말해 신혼기 부부는 본인이 배우자와의 차이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에 더 큰 영향을 받고, 그 중 남편은 아내의 차이 수용 태도에 부가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 주제와 이론적 바탕을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은 결과는 서로의 차이를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신자의 태도를 변화시킬 것을 강조하는 통합적 행동 커플치료의 특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차이 수용은 부부 및 가족상담의 공통요인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통합적 행동 커플치료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만 25세부터 43세까지로 대부분 밀레니얼 세대에 해당하고, 자녀가 없는 신혼기 부부들이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의 결혼만족도를 K-CSI 16의 절단점과 비교하였을 때 1.25%는 스트레스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 연구는 비확률표집

방식으로 이루어진 전국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의 신혼기 부부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신혼기 부부임을 감안했을 때 서로를 의식하고 관계상 바람직하게 응답하거나 함께 의논하여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또 지각의 유사성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서로의 차이 수용 태도를 평정하도록 하여 자기보고와 배우자의 평정 간 비교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순수하게 신혼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차이 수용 태도의 영향만을 살펴보았다. 또 오차항 사이에 .24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제 3의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원가족 경험, 의사소통 능력, 성적 친밀감 등을 측정 변인으로 추가하여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갈등의 심각도 그리고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부 상담을 받고 있거나 이혼 위기에 있는 신혼기 부부들 또는 노년기 부부들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석하고 본 연구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차이 수용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개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기혼 부부를 대상으로 쌍자료를 수집하여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부부의 응답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남편과 아내의 상호연결성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자신의 차이 수용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상대방효과는 아내에게서만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부부상담 진행 시 각 배우자의 차이 수용 태도, 특히 아내의 차이 수용 태도를 증진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도 수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지행동 커플치료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차이 수용은 부부상담에서의 공통요인인 ‘자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도록 하기’와 연결 지을 수 있다. 이는 부부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나면 배우자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이 기여하고 있는 역할을 바꾸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Sprenkle, Davis & Lebow, 2009, 최연실 역, 2021). 따라서 관계교육 및 상담 전문가들이 접근법과 관계없이 신혼기 부부의 차이 수용을 촉진하는 데 유용한 전략 및 기법을 계획하고 사용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민재 (2016). 공감능력, 정서표현성 및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혜숙, 김영희 (2008). 결혼초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 가족과

가족치료, 16(1), 135-156.
 권수정, 전영주 (2007). ENRICH를 활용한 결혼초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가족과 가족치료, 15(2), 247-275.
 권정혜, 채규만 (2000). 부부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2), 207-218.
 김정주, 김영혜 (2015).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3), 93-112.
 김석선, 길민지, 김다운, 김선훈, 허다연, 문난영 (2022). 한국어판 부부 만족도 측정도구 및 단축형의 타당도와 신뢰도. 한국간호과학회지, 52(2), 228-243. <https://doi.org/10.4040/jkan.21177>
 김선주, 박정운 (2013).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17(3), 19-37.
 김유숙, 전영주, 김수연 (2003). 가족평가 핸드북. 서울: 학지사.
 김중술, 조두영, 홍강의, 조수철, 신민섭, 류인균, 유성진 (2002). 부부치료의 새로운 접근: 관용과 수용. 인지행동치료, 2(1), 1-13.
 김향순, 김순덕, 구명이 (2014). 기혼여성의 자아분화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3), 159-176.
 김현주, 안현의 (2011). 공감능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57-174.
 김혜수 (2019). 노년기 부부의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모형(APIMeM)의 적용.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진 (2005). 결혼초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긍정주의 심리치료 접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877-906.
 나남숙 (2017). 자기분화, 결혼만족도, 헌신 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상명대

- 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현주 (2021). 거부민감성과 이성관계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현미 (2005). 인지행동치료의 제3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5-33.
- 박길순, 박정윤 (2020). 신혼기 기혼남녀의 심리내적 변인이 부부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8(2), 259-283. <http://dx.doi.org/10.21479/kaft.2020.28.2.259>
- 박남숙, 연문희 (2002). 부부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3(2), 337-364.
- 박수선 (2013). 신혼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건강가정지원센터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31(1), 85-98. <http://dx.doi.org/10.7466/JKHMA.2013.31.1.085>
- 박정윤, 이태현, 강리라, 윤소진 (2019). 기혼남녀의 부부관계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이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의 성차연구: 배우자 조망수용과 일상적 부부호응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7(3), 505-528.
- 박찬미 (2014). 자기자비와 연인관계만족 사이에서 문제해결행동의 매개효과: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분석(APIM).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성희 (2014). 공감능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감사성향의 조절효과.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향선, 서미아 (2019). 자기-상대방 상호 의존성 모델을 활용한 신혼기 부부의 결혼만족도 영향요인. *가족과 가족치료*, 27(4), 647-669.
- 연규진, 연문희, 양지웅 (2013). 부부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가족과 가족치료*, 21(1), 57-80.
- 오종현 (2016). 원가족경험과 결혼만족 관계에 미치는 자기분화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7(2), 509-532. <http://dx.doi.org/10.22143/HSS21.7.2.24>
- 오현주, 최승미, 조현, 권정혜 (2012). 회피애착이 신혼기 부부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및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0(3), 525-546.
- 오현주, 최승미, 조현, 권정혜 (2013). 가부장적 원가족 분위기가 신혼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의사소통 패턴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 1-16. <http://dx.doi.org/10.18205/kpa.2013.18.1.001>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 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 원수경, 설경옥 (2020). 부부의 일상 스트레스와 공동대처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50(6), 813-821. <https://doi.org/10.4040/jkan.20162>
- 유보람 (2019). 부부의 자아분화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정서표현 억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희진 (2010). 친족관계 밀접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결혼 10년 이하의 기혼남녀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자 (1992).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이기복 (2006).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수용 프로그램*.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숙, 김득성, 공미혜, 김은경, 전영주, 손태홍, 오경희 (2009). *결혼의 기술(2판)*. 서울: 신정.
- 이미영, 권정혜 (2016). 자기개방과 공감반응이 신혼부부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24(4), 529-552.
- 이선희 (2011). 통합적 행동부부치료에 기초한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희 (2011). 부모의 부부갈등과 자녀의 결혼안정성과의 관계에서 자녀의 원가족분화와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영 (2017). *한국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효*

- 과에 대한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진 (2019).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자기분화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결혼기대-실제 간 상이성의 매개효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 (2011). 결혼에 대한 기대와 실제 간의 차이와 부부간 의사소통이 결혼초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현 (2007). 발달장애아동어머니가 인식한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자조집단 및 전문가의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아, 이인수 (2016). 부부관계의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자기분화,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4(3), 385-408.
- 임아영, 이훈진 (2020). IBCT에 기반한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4), 599-632. <http://dx.doi.org/10.22257/kjp.2020.12.39.4.599>
- 임아영, 이훈진 (2021). 성격특성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갈등해결전략과 다름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6(3), 123-149.
- 임아영, 이훈진 (2022a). 성인애착과 커플관계 질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및 다름 수용 태도의 역할. 인지행동치료, 22(3), 253-281. <https://doi.org/10.33703/cbtk.2022.22.3.253>
- 임아영, 이훈진 (2022b). 자기보고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 및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과 커플관계 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7(5), 719-743. <https://doi.org/10.17315/kjhp.2022.27.5.001>
- 임유진, 박정윤, 김양희 (2008). 원가족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이 신혼기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43-154.
- 전은희 (2017). 대학생 연인관계에서 자기분화가 연인관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APIM 분석을 적용하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문자, 정혜정, 이선희, 전영주 (2018). 가족치료의 이해(3판). 서울: 학지사.
- 정송이 (2019). 미혼 남녀 커플의 정서조절능력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 유계숙 (2001). 가족관계. 서울: 신정.
- 조유리 (2000).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영록 (2013). 부부간의 상호작용 변인과 결혼만족도 간의 인과관계.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빛내, 최우정, 최연실 (2018). 커플치료의 연구동향 분석: 국내 상담 관련 학술지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6(2), 301-320.
- 최인숙 (2005). 부부의 위기에 대한 용서경험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7). 인구동향조사: 이혼사유별 이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5004&conn_path=I2
- 통계청. (2018). 가족과출산조사: 가족 가치와 관련한 다양한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의 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1N203&conn_path=I2
- 통계청. (2020a). 가족실태조사: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 충돌 이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01_036&conn_path=I2
- 통계청. (2020b). 신혼부부통계. <https://www.narastat.kr/metascv/index.do?confmNo=101082&inputYear=2020>
- 통계청. (2021). 인구동향조사: 혼인지속기간(동거기간)별 이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5006&conn_path=I2
- 한지수, 최연실 (2021). 공통요인(common factors)을 통해 본 구조적 가족치료와 통합적 행동부부치료(IBCT)의 통합적 적용 가능성 및 가족치료적 함의. 가족과 가족치료,

- 29(2), 359-384. <http://dx.doi.org/10.21479/kaft.2021.29.2.359>
- 홍순진, 채규만 (2010). 한국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Gottman의 이론을 중심으로. *인간이해*, 31(2), 299-316.
- Altrocchi, J. (1988). Happy traditional and companionship marriages. *Social Casework*, 69(7), 434-442. doi:10.1177/10443894880690704
- Arkowitz, L. (1998). *The role of negative reciprocity and acceptance in couples: Predicting relationship quality*. Nevada, USA: University of Nevada, Reno.
- Bandalos, D. L. (2002). The effects of item parce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1), 78-102. doi: 10.1207/s15328007sem0901_5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Y: Jason Aronson Inc. doi:10.1192/s0007125000199842
- Carter, E. A., & McGoldrick, M. (1980). *The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NY: Gardner Press. doi:10.1176/ps.32.5.352-b
- Christensen, A., Atkins, D. C., Baucom, B., & Yi, J. (2010). Marital status and satisfaction five years following a randomized clinical trial comparing traditional versus 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8(2), 225-235. doi: 10.1037/a0018132
- Christensen, A., Atkins, D. C., Berns, S., Wheeler, J., Baucom, D. H., & Simpson, L. E. (2004). Traditional versus 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for significantly and chronically distressed married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2(2), 176-191. doi: 10.1037/0022-006x.72.2.176
- Christensen, A., Atkins, D. C., Yi, J., Baucom, D. H., & George, W. H. (2006). Couple and individual adjustment for two years following a randomized clinical trial comparing traditional versus 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6), 1180-1191. doi: 10.1037/0022-006x.74.6.1180
- Christensen, A., Dimidjian, S., & Martell, C. R. (2015). 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In A. S. Gurman, J. J. Lebow, & D. K. Snyder(Eds.),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5th ed., pp. 61-94). NY: The Guilford Press.
- Cook, W. L., & Kenny, D. A. (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 in development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29(2), 101-109. doi:10.1080/01650250444000405
- Duvall, E. (1977).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5th ed.). Philadelphia: J.B. Lippincott Company.
- Funk, J. L., & Rogge, R. D. (2007). Testing the ruler with item response theory: Increasing precision of measurement for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the couples satisfaction index.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4), 572-583. doi:10.1037/0893-3200.21.4.572
- Gottman, J. M., & Gottman, J. S. (2015). Gottman couple therapy. In A. S. Gurman, J. J. Lebow, & D. K. Snyder(Eds.),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5th ed., pp. 129-157). NY: The Guilford Press.
- Jacobson, N. S., & Christensen, A. (1996). *Acceptance and change in couple therapy*. NY: WW. Norton & Company.
- Jacobson, N. S., Christensen, A., Prince, S. E., Cordova, J., & Eldridge, K. (2000). 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An acceptance-based, promising new treatment for couple discor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2), 351-355. doi:10.1037/0022-006x.68.2.351
- Kenny, D. A. (1996). Models of non-independence in dyadic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3(2), 279-294. doi:10.1177/0265407596132007
- Lavner, J. A., Karney, B. R., & Bradbury, T. N.

- (2014). Relationship problems over the early years of marriage: Stability or chang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8(6), 979-985. doi:10.1037/a0037752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S.,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doi: 10.1037/0022-0167.45.1.18
- Sperry, L., & Peluso, P. R. (2019). Cognitive behavioral approaches to couple therapy. In L. Sperry, & P. R. Peluso(Eds.). *Couple therapy: Theory and effective practice* (3rd ed., pp.115-136). NY: Routledge. doi:10.4324/9781351051583-5.
- Sprenkle, D. H., Davis, S. D., & Lebow, J. L. (2021). 커플·가족치료에서의 공통요인: 효과적 개입의 토대(최연실 역, 원제: Common factors in couple and family therapy). 서울: 신정. (원저 2009년 발행)
- 논문접수일 : 2023년 02월 06일
- 심사시작일 : 2023년 02월 14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03월 09일

A Study on the Effect of Acceptance of Differences on Marital Satisfaction in Newlywed Couples: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Min Seon Jeong

Youn Shil Choi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acceptance of differences on marital satisfaction in newlywed couples. **Methods:** To achieve this purpose, 160 couples were recruited, a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using ADCRS and K-CSI. The collected dyadic data were analyzed using APIM to calculate actor effects and partner effects. **Results:** Firs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acceptance of differences and marital satisfaction. Second, the acceptance of differences of newlywed couples had an *actor* effect on marital satisfaction. Third, the *partner* effect was significant only in women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ceptance of differences and marital satisfaction.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more effective to focus on enhancing each spouse's acceptance of differences, especially the wife's acceptance of differences during couple therapy.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relationship education and couple therapy experts will plan and use strategies and techniques to promote acceptance of differences between newlyweds.

Keywords: *newlywed couples, acceptance of differences, 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marital satisfaction*